

섬, 바다와 미래 있다...세계 최초 '섬박람회' 준비 박차



여수세계섬박람회장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D-DAY 1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여수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정부 승인 국제행사다. 전남도와 여수시,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분야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개 전시관·야외 공연장·섬테마존 등 행사장 조성 속도 참가국 유치·프로그램 구체화...섬 방문의 해 지정 건의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섬을 단절된 공간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 자원으로 조명한다.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는 주제관을 비롯해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문화관 등 8개 전시관과 야외 공연장, 섬테마존 등이 조성된다.

부행사장은 금오도와 개도의 마려돼 관광객들이 직접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캠핑, 트레킹, 섬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수세계섬박람회장도 학술대회와 전시 등 다양한 부행사장으로 활용된다.

박람회장은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섬의 미래를 실감 나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섬 생태와 문화를 담은 전시는 물론, AAM(도심항공교통)과 위그선 시연 등 미래 교통 수단도 선보인다.

세계와 한국의 섬을 축소해 조성한 섬테마존에서는 섬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작품과 포토존이 관광객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수 섬을 모티브로 한 주제공연과 각국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열린다.

특히 섬박람회는 실제 섬을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관람객들은 금오도와 개도의 탐방로를 걸으며 해안 절경을 감상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며 섬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키약·가늌 체험, 해산물 채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쓰담 걷기’, 섬 요가 등 환경·힐링 콘텐츠도 준비된다.

부행사장 외에도 섬 크루즈, 요트투어, 특산물 체험 등 관광상품이 기획돼 박람회 이후에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2026년 8월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열리며, 섬박람회 개막 시점에는 ‘세계 섬 도시대회’, ‘국제 섬 포럼’ 등 국제행사가 함께 열린다.

어업과 어촌 발전을 논의하는 ‘세계 어촌 대회’ 유치도 추진 중이다. 조직위는 박람회 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와 연계하려는 계획도 밝혔다.

참가국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팔리핀 세부, 팔라우, 페루, 일본 고치현, 베트남 팜닌성 등 13개국

14개 도시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미국, 세이셸, 태국 등 20여개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WHO ACE, FAO, 국제슬로시티연맹 등 국제기구와 단체 참여도 추진 중이다. 조직위는 섬박람회를 다보스



프랑스대사관 해외국가 유치활동

포럼처럼 섬·해양 분야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박람회 폐막 이후에도 국제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주행사장 주요 공연에는 어린이합창단, 풍물단체 등 지역민이 참여하고, 부행사장에서는 문화소외 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관람객이 주민과 함께 섬 문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관광상품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목표다.

교통대책도 세밀하게 준비된다. 시는 80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루 38대에서 주말 최대 60대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승용차보다 빠른 셔틀버스’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국동항과 해양공원에서 주행사장을 잇는 요트투어도 추진된다.

행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섬포터즈’ 등 시민 참여형 홍보단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5일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열리는 ‘D-365 행사’에서는 섬 주민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입장권 오픈 이벤트, 송가인·아이비·홍지민 등 인기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섬과 바다 자체가 무대다. 조직위는 교통·숙박·환경 등 전반의 인프라를 점검하고, 음식점 3점(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 실천운동과 친절 캠페인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해 관람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365일 뒤, 365개의 섬과 바다를 무대 삼아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세계적인 박람회가 펼쳐질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환경·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섬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개도 전경



금오도 출렁다리